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15년도 당회가 오늘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으로 교회에서 금요일(18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이후에 방학에 들어갑니다.

**전화번호 수정** :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서식에 새로운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 2016년 감리교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과 목상집인 <헤른후트 기도서>를 신청 받습니다.

**봉사자 모집**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폐제찬양과 기도회에서 연주자로 봉사할 분을 찾습니다. (피아노와 클래식 악기 등)

**성탄축하행사** : 교회학교가 준비하는 성탄 축하 행사가 다음 주일 오후 1:30에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신앙실천** : 삶의 주변을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정돈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1부 예배	미 5:2-5a / 눅 1:46b-55 히 10:5-10 / 눅 1:39-45	2부 예배	마 7:13,14
----------	--	----------	-----------

오늘 식당 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장미경 이영아 김세진 송동준  
 다음 주 식당봉사 : 강순배 국지연 서안나 류형민 이용석 강경화 성귀옥 이민범  
 오늘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40세 이하)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 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대림절 제3주 】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9. 하늘에 가득 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더 크고 밝게 타오르는 기다림의 초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도 간절하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한 주 한 주 자기의 색을 여의고 하얗게 변해가는 초처럼, 우리들도 부질없는 것들을 마음에서 비워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회가 작은 자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60:1,2 ..... 인도자  
 ♠ 교 독 문 ..... 117. 구주 강림(3)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대표기도 ..... 안길상 권사  
 응답송 ..... 찬양대  
 찬 양 ..... 99. 주님 앞에 떨며 서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I. 습3:14-20 빌4:4-7 눅3:7-18 ..... 권하영 선생  
 II. 미가 5:2-5 ..... 조문규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주의 영광 ..... 찬양대  
 말 씀 ..... I.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리 ..... 이범석 목사  
 II. 변방에서 시작되는 희망 .....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권혁래 김혜순 김광일 이부용 김순금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현영 문복순 민지회 박유영 김박시내 김박예림 김박옥식 서수진 서원금  
 유금주 윤영미 이국노 김민화 이한림 김박명희 김승동 김백해속 장병준 박소현  
 전인섭 정연희 주은경 한상경 홍성식 이유리 김임홍 노우영 김지현 구명자 국지연  
 김문주 김정진 김혜정 김종문 지명주 김주영 노우영 김지현 김현주 김혜진  
 문금석 박숙미 박종철 임옥기 백성래 심상숙 안길상 이형숙 양상철 박재란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윤성종 김윤정 이근식 신영신 이동천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임고은 오재영 임호성 정이윤정 이정선 정선희 정완수  
 정원석 김현영 정현모 조순덕 조지연 주경진 이윤정 허성호 진은혜 허준호

### 감사헌금

강금분 강석남 권채영 김성우 박유경 김주원 이하나 박재영 이현정 박준형  
 박창운 허정윤 방 준 송인선 이건호 이광재 이유일 김미희 이재문 이지하  
 임광호 임보람 임창선 최금순 무명7

### 녹색꿈헌금

조항범 무명5

### 생일감사헌금

강상연 송양진 신아현 최 숙 최진성 최 현 무명7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 해 속	박 성 희	정 두 리	연합속회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이 재 문	
가 나 안	장 영 속	신 영 신	신 영 신	
베 다 니	박 흥 재	박 흥 재	김 태 정	
시 온	권 미 속	박 미 영	권 미 속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이 봉 옥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김 필 순	
가 버 나 움	안 흥 속	오 현 정	안 흥 속	
나 사 렷	김 경 혜	홍 춘 속	안 현 속	
다 메 섹	박 해 경	박 해 경	안 창 선	
두란노1	김 재 흥	오 자 영		
두란노2	김 재 흥	송 형 운		
두란노3	이 범 석	이 진 영		
두란노4	이 범 석	곽 상 준		
두란노5	신 진 식	이 오 복		

## 손가락을 위하여

죽순 몇 개 머릿대 한 다발  
좌관 벌이러 입실댁 절뚝이며 장에 갔다/  
한쪽 다리 고장 난 몸뚱어리가 전 재산  
열무 한 단보다 비쌀 것도 없는 것 늘 지고 다니니/  
뉘 와서 가져갈 것 있으면 가져가 봐라  
빈 집 문고리에 꽂아놓은 손가락 하나/  
손가락자물쇠 혹은 빗장,  
뱃장 간단하다 단호하다/  
거룩한 것은 그렇듯 단순하다  
손가락 하나 들었다 놓는 일/  
세상에서 가장 큰 문은 사람의 입  
그 문 열고 닫는 열쇠도 손가락/  
꽂, 이분음표로 내려놓을 때까지  
그 거룩한 손가락질을 위하여/  
과거보러 가듯 새벽같이 입실댁 장에 간 사이  
빈 집 혼자 적요를 손가락질 하고 있다

- 복효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작고 연약하다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을 품고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새롭게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쉽게 세상에 희망이 없다 탓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 나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평화를 만들며 살겠습니다. 희망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당회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김동호 선생 김재환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완식 송형운 추헌영 하미림 박진숙
	헌금위원	윤석철 김혜정

## ▣ 믿음으로 읽는 글

###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평화는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평화로 산다는 것은 어찌면 눈물로 사는 것  
쥬 살도 되지 않은 늙은 청년의 얼굴로 사는 것  
한 벌의 속옷과 그 흔한 신발로 사는 것  
평화로 춤추지 않으면 세상은 큰 무덤이 되리니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평화는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 홍순관, <시간은 나무처럼 느렸으면 좋겠어> 음반 수록

흙과 같이 하는 일은 변화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한나절 일 하다가 허리를 펴보면 일해 놓은 것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돌밭을 일굴 때도 그랬고 마당을 고를 때도 그랬다. 마치 자연이 하는 일처럼 나중이야 아! 하고 알게 된다. 그러나 그런 조그만 변화들로, 저 너머 세상의 신비를 만나러 갈 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게 된다.

개미가 땅을 기어 겨울 양식을 구하듯, 새가 오랜 시간 둥지를 치듯, 쇠똥구리가 고집처럼 제 집을 뚫쳐나가듯, 보이지 않는 땀들이 인류의 땅을 경작해 나간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어 오는 것이 아니다. 삭막한 땅에서

싹이 올라오듯 아침과 계절의 신비처럼 올 것이다. 어둠이 지나야 아침이 오고 계절이 지나야 또 다른 계절이 온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야 온다는 말이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머스트(A. J. Muste)의 말은 지당하다. 그런데 소위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작 ‘평화’보다 ‘평화에 대한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얼굴이 말하고 일상이 말한다.

아, 여기서 엔도 슈사쿠의 상상력(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수의 얼굴을 따라가 보자. 성서 전체에 거의 언급이 없는 그 분 얼굴에 대한 흥미로운 근거가 있다. 요한은 복음서에 “당신은 쥬 살도 되지 않았는데...” 라고 적어 놓았다. 30대의 예수를 보며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며 던진 말이다. 고뇌에 차고 가난과 억압에 분노와 연민으로 가득한 얼굴, 늙어버린 청년예수의 얼굴이다.

흔한 신발과 한 벌의 속옷을 제자들에게 요구했다면 그 분 자신의 차림새는 어떠했을까? 그러나 예지와 상상력 넘치는 그 분의 얼굴은 틀림없이 해처럼 빛났을 것이다. 파도가 쳐도 뱃머리에서 잠을 자는 그 분의 얼굴은 평화가 아닐 수 없다.

평화를 살지 않으면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무릇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이 없다면 평화는 없을 터, 우리의 흘린 눈물 없이 평화는 없다. 겨울을 지나간 시간 없이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성서의 예수는 청년처럼 도전적이고 단호하다. 그 분은 내가 곧 길 이요, 평화라고 했다. 다만 그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안락의 생활을 누리 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다른 길’은 걷지 않으셨다. 쓸쓸하고 그늘진 곳을 찾아 다니셨다. 겨울을 사셨다. 그 분의 부활은 겨울을 지나간 봄이다.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평화는 올 것이다.

- 홍순관, <나는 내 숨을 쉰다>(꽃자리) 중에서